

# 출판동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만년필과 파피루스》 《날아라 거북이》 《적들의 사회》

강철주

출판평론가

대선 정국과 맞물린 정치권 이야기가 아무리 흥미진진해도 출판계와 그 언저리에서 글쓰고 책 만드는 일로 밥을 먹는 내게 술자리의 귀동냥이건 책을 통해서건, 가장 재미있고 궁금한 것은 역시 '우리 동네' '아는 사람들' 이야기다. 다른 이들도 아마 사정은 비슷하지 싶다. 모름지기 출판동네에 적을 둔 주민들이라면, 대기업 사원들에게 재벌 총수의 성공담이 화제가 되는 것처럼 출판동네와 그곳의 사람들이 최대의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 활자로 찍힌 오도방정의 세상'

컴퓨터 덕분에 영수증에 사인하는 일조차 귀찮다고들 하는 세상치고는 제목부터가 고색창연한 최일남의 《만년필과 파피루스》(강)는 그래서 주목을 끈다. 소설로서의 문학적 성취 여부를 따지기 앞서, 작품의 주된 무대공간이 우리 동네라는 점에서 이 책은 우선 흥미롭다. 우리 동네 이야기이기는 하되, 제목이 암시하듯 흔히 납활자시대로 지칭되는 '예전의'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점 또한 흥미롭다.

연작소설 형태를 띠고 있는 《만년필과 파피루스》는 수십년 동안 출판사와 잡지사, 신문사를 두루 편력한 끝에 이제 "최소한 글자를 갖고 노는 세계에서만 풀리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윤상호'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가 몸 담았던 우리 동네의 옛 풍경을 펼쳐보인다.

그 속에는 여성지의 포토에세이를 오려 벽에 붙여놓고 문화적 허기를 달래는 지방소읍의 순진한 여성독자가 있는가 하면, 세월의 흐름에 밀려 점차 사라져가는 납활자 문치를 애지중지 보듬고 있는 문선공이 등장한다. 또 애독자입네 하며 찾아와선 입에 발린 아부 끝에 몇푼 용돈을 뜯어가는 초보 사기꾼이 나오는가 하면, "자학으로 정열을 빚고 위악으로 순한 눈망울을 굴렸"던 예술가들도 출연한다. 그들이 엮어내는 '우리끼리의 역사'와 '활자로 찍힌 오도방정의 세상사'가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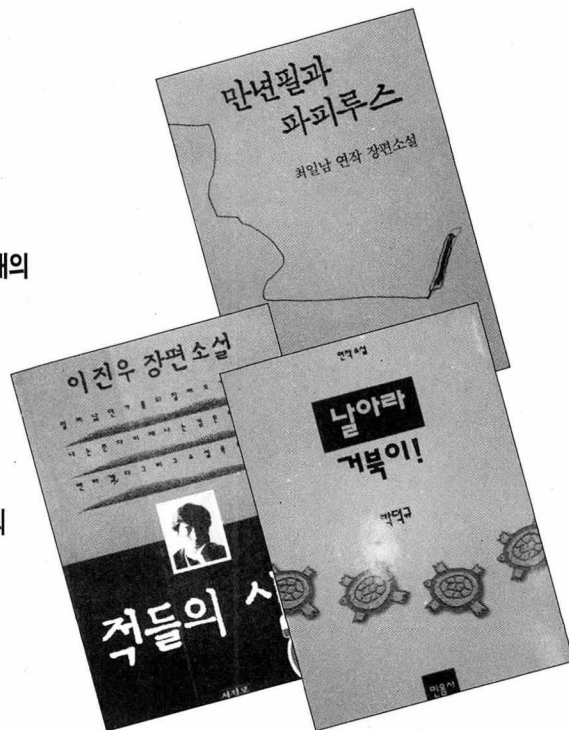
그 역사와 세상사를 술회하는 작가의 어조는 대체로 따뜻하다. 때로 '문화의 화초기생' 구실밖에 더한 게 없잖은가며 자조하기도 하지만, "판매 따로 편집 따로의 명쾌한

**술자리 귀동냥이건 책을 통해서건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출판동네' 아는 사람들 이야기다. 납활자시대의 역사와 세상사를 술회한 최일남의 소설을 비롯해, 박덕규·이진우의 작품은 모두 문화생산의 현장과 일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들 사이의 넓고 깊은 골의 호오는 독자의 몫으로 남는다.**

독립'이 가능했던 시절과, "점심상에서도 으레 반주를 곁들이는 습속을 여전히 끼고 사는 동네"에의 향수를 표나게 드러낸다. <작가의 말>에서 한 구절 그대로 따오면 "애잔하게 스러져간 것들의 잔해를 붙들고 한잔의 독주를 뿌린 흔적이 농후하다."

《만년필과 파피루스》가 신문사를 주무대로 한 옛날 이야기인데 반해, 박덕규의 연작소설 《날아라 거북이!》(민음사, 1996)는 요즘 출판계의 풍속도를 그려보인다. 그런데, 이 풍속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이 대개는 부정적이다. 아내의 소비욕을 채워주기 위해 매문(賣文)을 일삼으며 "큰 것 한 건"에 매달리는 작가, 술 50만원어치 사주고 백만원 수급해오는 영업부장, "구멍가게 같은 출판사 하나 하면서 세계화다 21세기다 품만 잔뜩 잡는" 사장, 소설 속의 에로틱한 장면만을 모은 외설 다이제스트를 《세계명작, 추억의 100장면》이란 책으로 포장해주는 대학교수 기획위원, 어쭙잖은 수필문치를 책으로 내고 싶어 안달하는 서점 여직원 등에 대해 작가는 굳이 냉소를 감추지 않는다. <날아라 도적떼> 같은 작품에서는, 제목에서처럼 등장인물 전부를 아예 도적으로 조롱한다. 작품 속 가상의 '청록출판사'는 당연히 하게도 도적떼의 소굴이 된다.

최일남의 아들뻘되는 세대로서 "박노식, 아니면 남진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값싼 대중문화 속에서 상상력을 키운 사람"임을 고백하는 박덕규는, 최일남이 여성지의 포토에



세이를 오려 벽에 붙여놓은 지방소읍의 여성독자를 연민과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취미가 독서라고 '주장' 하지만 정작 읽는 책은 "부드럽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들"뿐인 출판사 경리직원의 행태를 비틀고 꼬집는다.

둘 모두 각각의 시대의 가장 평균적인 독자들인데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최일남은 따뜻하고 박덕규는 차다. 아마도 그것은 시절탓이지 싶다. 그나마 지사적 기개가 남아 있던 《만년필과 파피루스》의 시절에 비해 《날아라 거북이!》 시절의 출판계는 천민 자본주의와 문화적 속물근성이 만연해 있는 90년대 한국사회의 한 축소판일 뿐이기 때문이다. 《날아라 거북이!》는 출판계라는 문화생산의 현장에서 일상처럼 벌어지는 비·반문화적 행태들을 실감나게 보여줌으로써 위선과 허구로 가득찬 우리네 세상살이를 반성하게 만든다.

##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사회'

이진우의 장편소설 《적들의 사회》(서적포, 1994)는 앞의 두 책이 각각 신문사와 출판계를 작품의 주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에 반해 문단 이야기가 큰 줄기를 이루는데, 무슨 까닭인지 문단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맹렬한 적의로 가득차 있다. 작가에게 문단은 '우리 동네' 이면서 동시에 '적들의 사회'이다. "눈을 한 번 휘, 돌리는 것으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적들의 사회》에는 음모와 술수와 불륜과 배신만이 가득차 있다. 마치 한편의 범죄소설을 읽는 것 같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작품 속에 묘사된 문단의 모습을 덩싹 현실로 받아들일 소지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입장에선 우리 문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극단적 과장쯤으로 이해되는 게 온당하지 않겠느냐고 '걱정' 할 만큼 그 내용이 위험하고 불온하다.

동어반복이겠지만, 《적들의 사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적'들이다. 출판사 사장이자 계간지의 주간으로 이른바 '문화권력'의 정점에서 작가들과 문학판을 농단하는 '최동익'을 비롯해, 최동익의 그늘에 기생하며 문학적 영향력에 관한 한 확실한 지분을 쟁기려 애쓰는 일간지 문화담당 기자, 비밀결사와의 같은 공동창작팀에서 스타로 키워지는 유명작가, 신춘문에 당선을 위해서라면 심사위원들에게 성적인 봉사까지도 기꺼이 제공하는 여기자, 자비출판한 그저 그런 시집 한편 들고와 막무가내로 기사화를 부탁하는 무명시인 등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음모가이거나 파렴치한이다.

그들은 "작가가 어디 작품으로 말하나? 평론과 언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지"라고 말한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일류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일류의 대열에 끼일 수 없다"고 믿는다. "(평론가들은) 작품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보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교시를 내리지만 기다렸다가 그 교시를 분석하고 원용하는 획일적인 위계질서"에 갇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런 그들의 음모에 의해 한 전도유망한 소설가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그 죽음마저 자신들이 새롭게 문학권력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굳히는 데 이용한다.

똑같이 문화생산의 현장과 문화생산자의 일상을 다루면서도 이 책들 사이의 골은 이토록 넓고 깊다. 그 골을 매우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서서 시비를 가리고 호호를 나누는 일은 이제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결코 올바른 소설독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출판동네와 인근의 주민들에게 이 책들은 아마도 문학으로 읽힐 것 같지 않다. 우리 동네 아는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